

『한국사』의 고대 전쟁사 서술과 개선방향

- 2014년 발행 고등학교 교과서를 중심으로 -

이 부 오*

1. 머리말
2. 2009 개정 교육과정 『한국사』 교육목표와 전쟁사
3. 고대 전쟁사의 맥락에 대한 서술 검토
4. 고대 전쟁사 지도의 특징과 문제점
5. 고대 전쟁사 서술의 개선방향
6. 맺음말

1. 머리말

한국에서 역사교과서는 전쟁사의 기본 텍스트가 되어 왔다. 이런 점에서 2014년 3월부터 2009년 개정교육과정 고등학교 『한국사』 [이하에서 ‘『한국사』’] 8종이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한국사』는 2011학년도에 검정교과서로 처음 발행되어 국정교과서인 『국사』를 대신했고, 1학년 기준으로 2013학년도까지 사용되었다.

* 주엽고등학교 교사

그런데 이 교과서는 원래 근현대사를 중심으로 계획되었고, 전근대사 부분은 2007 교육과정의 『한국문화사』를 없애는 대신 급하게 보완되었다. 때문에 근현대사 부분과의 연계성이나 중학교 『역사』 [이하에서 ‘『역사』’]와의 계열성에서 적지 않은 한계를 보였다.¹⁾ 이는 전근대사 부분을 중학교 『역사』에서 집중 학습하는 것으로 계획되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반면 현행 『한국사』는 교육과정 내용과 집필기준이 2011년 말까지 확정되어 상대적으로 안정된 집필이 이루어졌고, 고대 부분이 독립된 章으로 편정되어 고대 전쟁사의 내용요소를 어느 정도 갖추게 되었다.

하지만 그 서술에 대해서는 삼국통일 관련 내용에 대한 교과서별 비교 분석이 이루어졌을 뿐, 본격적인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²⁾ 이는 『한국사』 교과서의 재집필 주기가 지나치게 짧아진 점이나 중학교 『역사』의 비중을 중시한 점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역사교육에서 차지하는 고등학교 『한국사』의 비중을 고려하면, 이 교과서의 고대 전쟁사 서술에 대한 평가는 의미있는 작업이 될 것이다.

우선 『한국사』는 기존 교과서를 기반으로 삼아 집필되었으므로, 기존 연구를 통해 제시된 방향이 제대로 반영되었는지의 여부가 주목된다. 예를 들면 2011년 『한국사』와 관련해서는 서술의 오류와³⁾ 학습자료 이용의 특징을 중심으로 분석이 이루어졌다.⁴⁾ 현재 중학교 『역사』와 관련해서는 교육과정의 정상적인 적용을 통한 집필의 필요성과 학술적 오류가 다각적으로 지적되었다.⁵⁾ 이러한 지적이

-
- 1) 차미희 「2009 개정 교육과정 고등학교 ‘한국사’의 전근대사 내용」, 『역사와 교육』 13, 역사와교육학회, 2011.
 - 2) 차미희,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의 삼국통일 관련 서술에 대한 비교·검토」, 『신라사학보』 32, 신라사학회, 2014.
 - 3) 조경철, 「2010년 김인정 6종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의 삼국시대 관련 서술 검토」, 『사총』 74, 고려대학교사학회, 2011.
 - 4) 윤계운, 「고등학교 검정 ‘한국사’ 교과서와 역사부도의 전근대 서술과 문제점」, 『한국사연구』 152, 한국사연구회, 2011.
 - 5) 김한중, 「중등 역사교과서 개편과정과 특성」, 『한국고대사연구』 64, 한국고대사학

반영되었는지는 검토의 기본 전제가 될 수 있다.

서술의 관점에서는 기존 교과서에서 강조되었던 민족주의가 이제는 객관적 사실을 담보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었다.⁶⁾ 전쟁사 학습에서 승패 자체보다 평화의 가치가 중요하다는 견해도 제출되었다.⁷⁾ 이러한 관점을 역사교과서에서 모두 구현하기는 어렵지만, 역사교육의 측면에서는 유의되어야 한다.

한국사에서 전쟁은 시대를 막론하고 국가와 국민의 운명에 커다란 영향을 끼쳐 왔다. 그중에서도 고대의 전쟁은 고대국가의 성장과 상호 경쟁, 그리고 대외항쟁의 측면에서 다양하게 발생했다. 궁극적으로는 한민족이라는 공동체의식을 형성하는 데 결정적인 근거로 자리매김되어 왔다. 이런 점에서 고대 전쟁사 서술은 교과서 집필자의 전쟁사 인식과 역사 인식을 파악하는 척도가 될 수 있다.

교과서의 전쟁사 서술은 역사교육적 목표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전문적인 전쟁사 논고와는 다른 조건을 갖춰야 한다. 첫째, 교육과정에서 교육목표를 올바르게 설정해야 한다. 한국에서 역사교과서는 국가가 제시하는 교육목표의 범위 내에서 서술되어 왔기 때문이다. 이를 근거로 교과서 집필기준이 올바르게 제시해야 한다. 각 교과서에서 이러한 기준의 준수 여부는 전쟁사 서술에서도 적용될 수밖에 없다.

둘째, 역사 교과서는 학생들이 학습내용을 쉽게 이해하도록

회, 2011; 송호정, 「제7차 개정 교육과정 중2 ‘역사’ 교과서의 ‘문명의 형성과 고조선의 성립’ 서술내용 검토」, 『한국고대사연구』 64, 한국고대사학회, 2011; 강종훈, 「2011년 발간 <중학교 역사(상)> 8종 교과서의 삼국시대 정치사 관련 부분 내용 검토」, 같은 책; 조범중, 「2007년 개정교육과정 중학교 역사(상) ‘삼국의 사회와 문화’ 분석」, 같은 책; 하일식, 「<중학교 역사>의 통일신라·발해 서술 검토-검정 교과서(2011년) 8종의 내용과 시각 자료-」, 같은 책; 조인성, 「제7차 개정 교육과정 중학교 <역사> 교과서의 신라 하대~고려 초 서술의 검토」, 같은 책.

6) 이부오, 「2011년 발행 고등학교 <한국사>에 나타난 고대사 서술의 변화」, 『신라사학보』 24, 신라사학회, 2012, 347쪽.

7) 김한중, 「평화교육과 전쟁사」, 『역사교육연구』 18, 한국역사교육학회, 2013, 101~117쪽.

효율적으로 서술할 뿐만 아니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시각 자료를 신중하게 제시해야 한다. 시각 자료는 동일한 정보를 보다 짧은 시간에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수단이기 때문이다. 특히 기존 교과서에 실린 시각 자료와의 비교는 현행 교과서를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다.

셋째, 시대적 추세에 부합하도록 학생들의 창의성을 계발하는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최근의 역사교육은 단순한 지식의 전달보다 지식을 가공해 새로운 해석과 결론을 도출하는 능력에 중요한 비중을 두고 있다. 그렇다면 전쟁사 서술에서 이러한 노력이 어떤 방식으로 적용되었는지 평가할 필요가 있다.

이상을 전제로 본고에서는 우선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전쟁사와 연관된 교육목표가 등장하게 된 맥락을 기존 교육과정의 흐름 속에서 파악할 것이다. 이를 토대로 2014년 발행 『한국사』에 나타난 고대 전쟁사의 맥락을 검토하여⁸⁾ 이를 2011학년 발행 『한국사』 및 중학교 『역사』, 그리고 2002년도부터 사용된 제7차 교육과정 고등학교 『국사』와 비교하려 한다. 또한 고대 전쟁사를 설명하기 위해 사용된 지도에 나타난 특징과 문제점을 파악할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역사교과서에서 고대 전쟁사 서술의 개선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본고의 목적이다.

2. 2009 개정 교육과정 『한국사』 교육목표와 전쟁사

2014년 발행 고등학교 『한국사』는 2009 개정 교육과정에 근거

8) 본고에서는 2014학년도 3월부터 사용된 시중 판매본을 사용했다. 다만 시중에서 절판된 교학사 교과서에 대해서는 2013년 발행 전시본을 이용했다.

를 두었다. 원칙적으로 전쟁사 서술은 이 교육과정이 규정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 그런데 이 교육과정은 기존 교육과정의 상당 부분 계승해 나름대로 새로운 방향을 설정한 것이다. 이에 본장에서는 전쟁사 서술과 관련된 2009 개정 교육과정의 주요 교육목표를 기존 교육과정의 흐름 속에서 평가하여 『한국사』 교과서 분석의 전제조건으로 삼으려 한다.

2009 개정 교육과정의 『한국사』 교육목표에서 전쟁사를 직접 언급한 부분은 발견되지 않는다. 다만 우리 역사가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바탕으로 이루어졌음을 인식하고 국가공동체의 발전을 위해 노력한다는 방향을 설정하였다.⁹⁾ 이는 한국사에서 명멸했던 국가들이 오늘날 한국인들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역사적 근거를 제공했다고 설명한 것이다. 이러한 입장에서 보면, 역사 속에서 국가를 지켜내기 위해 수행된 전쟁은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과 공동체 의식을 형성하는 데 커다란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

반면 이 교육과정에서는 다원적 가치와 비판적·창의적 사고력을 함께 강조했다.¹⁰⁾ 이러한 가치는 창의성의 함양을 강조하는 현행 교육정책에서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일종의 다원적 가치를 추구한 것이다. 이는 전쟁사 서술에서도 적용될 수밖에 없는데, 한국인의 정체성에 대한 강조는 한민족의 일체감을 중시한다는 점에서 일원적 가치를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 이처럼 상반된 가치가 기존 교육과정에서 어떻게 자리매김되어 왔고, 이것이 교과서의 전쟁사 서술에서 가지는 의미가 무엇인지 파악해 보자.

정부 수립 이후 제1차 교육과정은 1955년 8월 1일 공포되었다.¹¹⁾ 이 교육과정의 고등학교 『국사』 지도요령에서는 민족애와

9) 교육과학기술부, 「2009 개정 고등학교 역사 교육과정」,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고등학교 역사교과서 집필기준 공청회』, 국사편찬위원회, 2011.12.16, 189~191쪽.

10) 앞책, 189~190쪽.

11) 문교부, 『초·중·고등학교 교육과정(1946~1981)-총론-』, 대한교과서주식회사,

민족적 과업의 달성이 강조되었다.¹²⁾ 이는 1947년 미군정청이 발표한 중등학교 교수요목의 사회생활과에서 흥익인간의 이념에 입각해 애국애족을 강조하고 식민지 지배의 잔재를 청산하자고 언급한 것과 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졌다.¹³⁾ 일제강점기와 6·25전쟁을 겪은 뒤 새로운 국가 건설을 추진하던 상황을 고려하면, 역사 속에서 민족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은 자연스런 현상이었다.

1963년 2월 15일 공포된 제2차 교육과정의 국사과 지도목표에서는 우리 민족의 미점과 우수성을 찾아 민족애를 철저히 하고 민족적 과업을 달성하기 위해 올바른 반성을 가지도록 규정했다.¹⁴⁾ 역사교육에서 민족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한 것이다. 다만 지도내용에서는 ‘신라의 삼국통일’ ‘고려의 대외관계’처럼 포괄적으로 단원을 설정했고, 전쟁사를 직접 내세우지 않았다.

1974년 12월 31일 공포된 제3차 교육과정에서는 고등학교 『국사』를 국정제로 전환했다. 그 교육목표에서는 올바른 민족사관을 확립하며 민족적 자부심을 키워 민족 중흥에 이바지한다고 명시했다. 이를 통해 민족사에 대한 긍지를 가지도록 하였다.¹⁵⁾ 기존 교육과정에서 강조하던 민족애는 민족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의 차원으로 격상되었다. 유신체제 하에서 민족중흥이라는 현재적 목표를 위해 역사 교과서의 역할이 크게 강조된 것이다.

제5공화국의 성립과 함께 1981년 12월 31일 공포된 제4차 교육과정에서는 민족공동체 의식의 고양과 투철한 국가의식을 강조했다.¹⁶⁾

1986, 112쪽.

12) 문교부, 『고등학교 및 사범학교 교과과정』, 1955, 71~73쪽.

13) 문교부, 『문교개관』, 1958, 126쪽.

14) 문교부, 『초·중·고등학교 교육과정(1946~1981) -사회과·국사과-』, 대한교과서주식회사, 1986, 322쪽, 332쪽.

15) 앞의 책, 357쪽.

16) 문교부, 『초·중·고등학교 교육과정(1946~1981) -총론-』, 대한교과서주식회사, 1986, 169~170쪽.

이에 따라 국사과에서 올바른 민족사관의 확립과 우리 역사에 대한 긍지를 통해 민족중흥에 이바지한다고 목표를 설정했다.¹⁷⁾ 민족주의에 대한 관점은 기존과 거의 동일하게 설정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1988년 3월 31일 고시된 제5차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도 민족 문화에 대한 자부심은 중시되었다.¹⁸⁾ 다만 올바른 역사의식을 바탕으로 새 문화 창조와 민주사회 발전에 기여한다고 규정했다. 민족주의에 대한 강조가 상대적으로 약화된 것은 1987년 6월항쟁 이후 절차적 민주화가 이루어지면서 교육목표에서도 민주주의적 가치를 강조한 결과로 판단된다. 그러나 삼국 간의 항쟁, 중국과의 항쟁 등을 중시한 점은 기존 교육과정과 별다른 차이가 없다.¹⁹⁾

1992년 10월 30일 고시된 제6차 교육과정의 교육목표에서 민주 시민의 자질 육성과 함께 민족 공동체의식을 함양을 강조한 것은 기존과 유사하다. 다만 비판적 사고력을 강조함으로써 역사교과서에서 다양한 가치의 함양을 추구했다.²⁰⁾ 내용체계표에서는 고대의 외침 격퇴, 근세의 왜란과 호란, 6·25전쟁 등을 명시함으로써 전쟁사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제시했다.²¹⁾

1997년 12월 30일 공포된 제7차 교육과정에서 민주시민의 자질과 함께 국가 공동체의 발전, 민족의 정체성을 강조한 것도²²⁾ 유사한 맥락으로 볼 수 있다. 이를 위해 고구려의 대수·당전쟁을 통한 방파제 역할, 고려의 대외항쟁, 조선의 왜란·호란 극복을 강조하였다.²³⁾ 다만 세계시민으로서의 의식과 태도, 그리고 논리적·비판적·

17) 문교부, 『초·중·고등학교 교육과정(1946~1981) -사회과·국사과-』, 대한교과서주식회사, 1986, 360쪽.

18) 김홍수, 『한국역사교육사』, 대한교과서주식회사, 1992, 327쪽, 352쪽.

19) 문교부, 『고등학교 국사과 교육과정 해설』, 1988, 90쪽.

20) 교육부, 『고등학교 사회과 교육과정 해설』, 1995, 35쪽, 145~146쪽.

21) 앞의 책, 148쪽.

22) 교육부, 『사회과 교육과정』, 1997, 4쪽, 106쪽.

23) 앞의 책, 112~115쪽.

창의적 사고력을 강조함으로써²⁴⁾ 세계화의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능력을 추구했다.

2007 교육과정에서는 고등학교 『역사』가 국정교과서인 기존 『국사』를 대신해 검정체제로 전환하였다. 특히 역사 자료에 대한 탐구와 해석을 바탕으로 비판적 사고력과 합리적 판단력의 향상, 그리고 역사에 대한 통찰력을 강조한 점이 두드러진다.²⁵⁾ 이러한 방향은 교과서 집필 기준에서도 적용되었지만, 기존 『국사』에서 강조된 민족사에 대한 자긍심과 애정도 중시되었다.²⁶⁾ 그런데 2007 교육과정은 준비 과정에서 수정 고시되어 고등학교 『역사』는 『한국사』로 대체되었다.²⁷⁾ 하지만 『한국사』 교육목표는 『역사』를 대체로 수용하였다.

이상과 같이 2009 개정 교육과정에 추구한 국가공동체 의식의 함양은 제1차 교육과정 이후 강조된 민족의식의 연장선상에 있다. 다원적 가치와 비판적·창의적 사고력에 대한 강조는 제6차 교육과정에서 제시되고 2007 교육과정으로 구체화된 뒤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도 수용되었다. 2011년 말에 발표된 교과서 집필 기준에서도 이러한 교육목표가 대체로 반영되었다.²⁸⁾

여기서 전쟁사는 역시 독립적인 주제로 설정되기보다 정치사의 하위 요소로 다루어졌다. 그렇다면 2009 개정 교육과정에 근거한 『한국사』의 전쟁사 서술이 이상의 교육목표와 집필기준에 비추어 어떠한 경향을 보이는지 분석할 필요가 있다.

24) 앞의 책, 4쪽.

25) 교육인적자원부, 『사회과 교육과정 별책7』, 2007, 37쪽.

26) 교육과학기술부, 『2007 개정 교육과정(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2007-79호)에 따른 역사교과서 집필기준』, 2009, 2쪽.

27) 교육과학기술부, 『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 -사회(역사)-』, 2010, 76쪽.

28) 교육과학기술부, 앞의 책, 2011.12.30.

3. 고대 전쟁사의 맥락에 대한 서술 검토

2014년 『한국사』는 고조선부터 민족국가의 성립에 이르기까지 주요 전쟁을 출판사마다 거의 유사한 흐름으로 기술했다. 본장에서 는 그 내용을 2011년 『한국사』·『역사』 및 국정교과서기의 『국사』와 비교하여 그 성과와 문제점을 지적해 보자.

한국사에서 최초로 확인되는 전쟁은 기원전 3세기 초 고조선과 燕 사이에서 확인된다. 이는 기원전 4세기 말 이래 고조선이 연과 대립해 온 결과였다. 이와 관련하여 2009 개정 교육과정의 교과서 집필기준[이하에서 ‘집필기준’에서 고조선이 중국의 연나라와 대등한 입장에서 교류·대립했다고 제시한 것은 타당한 방향설정이다.²⁹⁾

이에 따라 일부 교과서는 기원전 3세기 초와 그 이전의 상황을 연 장군 진개의 침공 관련 사료와 함께 제시했고[지학사·교학사], 기원전 4세기경 고조선이 전국7웅의 하나인 연과 대등하게 발전했음을 강조했다[지학사]. 기원전 7세기 고조선의 존재와 기원전 3세기 서쪽 영토의 상실을 언급하기도 했다[금성]. 연의 침공 결과를 고조선의 영토 상실[천재교육], 일시적인 약화 정도로 완곡하게 표현하거나[비상교육] 기원전 4세기 고조선의 강성함만을 내세운 경우도 있다[미래엔]. 이상의 상황을 전혀 기술하지 않은 두산동아·리베르 교과서는 집필 기준을 따르지 않은 것이다.

2011년 『한국사』에서는 천재교육 교과서만 고조선·연의 대립과 진개의 침공을 다루었다. 삼화 교과서는 이를 기술하지 않았고, 나머지 교과서는 연과의 대립상황만 간략히 언급했다. 2011년 『역사』는 연과의 대결, 그리고 이에 따른 서쪽 영토 상실을 간단히

29) 교육과학기술부, 앞의 책, 2011.12.30, 2쪽.

언급하거나 전자만을 간단히 설명했다. 2014년 『한국사』는 2011년 『한국사』나 『역사』보다 연과의 전쟁에 대한 기술이 평균적으로 증가한 것이다. 당시 고조선이 滿番汗까지 밀려나 서쪽 2000여 리의 영토를 상실할 정도로 이 전쟁은 고조선의 운명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³⁰⁾ 이런 점에서 고조선·연 전쟁은 한국사에서 최초로 국운을 건 중대한 사건이었음에 틀림없다. 따라서 이 주제에 대한 기술이 평균적으로 늘어난 것은 바람직한 현상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고조선·연 전쟁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상황이 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 서술에는 한계가 따른다. 대부분의 교과서에서 이를 고조선·한 전쟁을 다루기 위한 맛보기처럼 언급하거나 서술에서 아예 제외한 것은 이와 무관하지 않다. 하지만 그 자체의 역사성을 고려하면 고조선·연 전쟁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인 서술이 필요할 것이다.

‘집필기준’에서는 漢 제국과의 전쟁이 갖는 역사적 의미도 서술하도록 제시했다.³¹⁾ 이에 모든 교과서가 기원전 108년 고조선의 멸망을 가져온 漢과의 전쟁에 대해 비중있게 다루었다. 대부분의 교과서는 한반도 남부의 진국에 대한 고조선의 중계무역 독점과 이에 대한 한의 불만이 전쟁의 배경이 되었고 지배층의 분열이 실질적인 멸망의 계기가 되었다고 하였다. 이는 『국사』부터 2011년 『한국사』를 거쳐 계속된 서술이다. 그런데 금성·비상교육 교과서는 흉노와 연결한 고조선의 압박이 漢 침공의 배경이 되었다고 강조했다. 지배층의 내분이 고조선 멸망의 한 요인으로 작용한 점은 틀림없지만, 한의 입장에서는 흉노와의 연결이 침공의 중요한 배경이 되었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전쟁의 배경과 관련하여 흉노와의 연결 내지 대외정책이 보다 구체적으로 기술되어야 할 것이다.

30) 『三國志』 魏書 東夷傳 韓 인용 『魏略』.

31) 교육과학기술부, 앞의 책, 2011.12.30, 2쪽.

기원전 108년 고조선이 멸망하고 한4군이 설치된 뒤에는 이들에 대한 축출과 중국과의 항쟁이 강조되었다. 이것이 고대국가 성장의 바탕이 되었다는 점은 『국사』 이래 계속 서술되어 왔다. 그중에서도 고구려의 대 중국 전쟁이 중시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현행 『한국사』는 대체로 태조왕의 요동 진출 모색, 魏 관구검의 침공, 고구려의 낙랑군 축출, 前燕의 침공을 서술하였다[미래엔·지학사·두산동아]. 그중에서도 두산동아 교과서는 ‘생각 넓히기’ 코너에서 5호 16국의 하나였던 전연을 중심으로 중국 정세를 지도와 함께 설명하여 국제적 배경에 대한 이해를 도왔다. 반면 위의 침공과[천재교육] 전연의 침공을 언급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비상교육·금성·교학사]. 이상과 관련하여 2011년 『한국사』에서 대부분의 교과서가 일부만 간략히 서술하고 지학사 교과서가 전혀 언급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고구려 초기의 대 중국 전쟁은 평균적으로 보완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역사』와 비교해도 대중국 항전과 관련한 고구려의 위기 상황을 보다 구체적으로 표현했다고 판단된다.

하지만 태조왕이 진출하려 했던 공간은 거의 ‘요동’ 혹은 ‘요동 동부’[금성]로 되어 있다. 당시 고구려가 요동을 모두 차지한 것은 아니고, ‘요동 동부’도 범위가 모호한 편이다. 이는 『후한서』와 『삼국사기』에 전하는 소략한 사료를 바탕으로 기술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했던 측면도 있다. 이와 관련하여 두산동아 교과서에서 고구려가 2세기 초에 현도군을 구축했다고 하여 좀 더 구체적으로 기술했다. 다만 당시 고구려가 주로 공격한 대상은 태자하 방면으로 통하는 요동군과 소자하 방면의 현도군이었다.³²⁾ 이를 고려해 고구려가 진출을 시도한 대상 공간과 진출 상황을 현실감 있게 묘사해야 한다.

교학사 교과서는 태조왕의 요동 공략을 언급한 뒤 낙랑군·대방군에 대한 정복으로 고구려가 요동으로 진출했다고 한다. 전자와

32) 여호규, 「고구려의 성립과 발전」, 『한국사』 5, 국사편찬위원회, 1996, 40~41쪽.

후자는 내용상 상호 모순되는 면이 있고, 낙랑군·대방군 축출과 고구려의 요동 확보 사이에는 전연의 멸망과 광개토왕의 정복활동 등이 진행되었다. 이런 점에서 시기와 과정에 대한 수정이 필요할 것이다.

삼국이 고대국가로 성장한 뒤에는 영토를 둘러싼 상호 전쟁이 뒤따랐다. 이와 관련하여 현행 『한국사』는 국가별 전성기의 영토선을 주목했다. 이는 『국사』 이래 2011년 『한국사』의 서술을 계승한 것인데, 적지 않은 차이도 발견된다.

우선 4세기 후반에 근초고왕이 대방군 지역이었던 황해도 일부를 차지하고 호남지역을 차지했다는 점은 기존 서술과 같다. 그런데 2011년 『한국사』·『역사』의 모든 교과서가 근초고왕의 요서 진출을 명시했다. 이와 관련하여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집필기준에서는 요서 경략설에 대해 학계의 논란이 적지 않다는 점에 유의하도록 제시했다.³³⁾ 이를 반영해 대부분의 교과서는 이를 회의적으로 보거나[금성] 요서진출을 언급하면서도 사실 여부에 대한 학계의 논란을 함께 제시했다[지학사·천재교육·리베르]. 논란 자체만 언급한 경우도 있다[두산동아·비상교육]. 반면 미래엔·교학사 교과서는 요서 경략설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지도에도 명시했다. 이는 ‘집필기준’과 어긋난다.

근초고왕의 요서 점령설이 교과서에 실린 것은 제3차 교육과정부터이다. 이 견해는 申景濬에 의해 제시되었고³⁴⁾ 김상기가 구체화했는데³⁵⁾, 이에 대해서는 긍정론과³⁶⁾ 부정론이 대립되어 있다.³⁷⁾ 그런데 근초고왕의 요서진출은 백제와 우호적이었던 남조계 사서

33) 교육과학기술부, 앞의 책, 2011.12.30, 3쪽.

34) 신경준, 「여지고」 2, 『국역 증보문헌비고』 14, 세종대왕기념사업회, 1995, 94쪽.

35) 김상기, 「백제의 요서경략에 대하여」, 『백산학보』 3, 백산학회, 1967.

36) 강중훈, 「4세기 백제의 요서 지역 진출과 그 배경」, 『한국고대사연구』 30, 한국고대사학회, 2003, 7~34쪽.

37) 이희진, 「백제의 대륙식민지 건설에 대하여」, 『STRATEGY』 21, 한국해양전략연구소, 1999, 135~137쪽.

에는 등장하는 반면, 4세기 후반경 요서 지역을 차지했던 前燕, 前秦에 대한 사서에서는 확인되지 않는다. 4세기 후반경 백제는 예성강 유역에서 고구려와의 영토경쟁을 벌였고, 마한 방면으로의 진출에도 주력했다. 이를 고려하면 근초고왕이 요서 지역을 점령했다고 보기는 곤란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요서 경략설을 그대로 수용한 것은 고대 우리 민족의 번영을 강조하기 위해 학문적 위험성을 감수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여러 가지 가능성에서 객관적 타당성을 추구하기보다 특정한 방향의 주장을 임의적으로 수용한 것이다. 또한 교학사 교과서가 머리말에서 창의성을 강조하고 미래엔 교과서가 비판적·창조적 지적 활동을 내세운 점과도 모순된다. 오히려 근초고왕의 요서진출설에 대해 대부분의 교과서가 ‘집필기준’을 따라 신중한 자세를 보인 것이 바람직한 변화라고 생각된다.

5세기에는 고구려가 전성기를 맞이해 확보한 최대 영토가 주목되었다. 고구려의 광개토왕이 후연을 격파해 요동을 차지하고 한강유역 이북을 차지했다고 대부분의 교과서가 서술했다. 이는 현행과 기존의 모든 교과서에서 거의 공통적이다.

이 중에서 미래엔 교과서는 광개토왕이 정복한 대상에 요동과 만주를 함께 언급했고, 교학사 교과서는 ‘만주의 대부분’이라 했다. 후자는 『역사』의 비상교육 교과서가 취했던 표현이고, 전자는 여타 『역사』 교과서가 택했던 방식이다. 그런데 만주는 요동과 같은 개념이고, 요동이 더 구체적인 역사성을 담보하는 용어이다.³⁸⁾ 이에 여타 교과서에서 요동으로 일괄해 서술한 것이 더 타당할 것이다.

장수왕이 백제의 한성을 함락해 한강유역을 차지한 것은 고구려 남하정책의 최대 성과로서 서술되어 왔고, 현행 『한국사』도 이를 따랐다. 그런데 고구려의 남진에 대응했던 나제동맹에 대해서는

38) 김한규, 『요동사』, 문학과지성사, 2004, 49~61쪽.

2011년 『한국사』는 모두 결성만 언급했고, 『역사』는 거의 모두 나제동맹의 결성과 해체를 기술했다. 이와 관련하여 현행 『한국사』의 일부 교과서만 5세기 초 나제동맹의 결성과 6세기 중엽의 해체[미래엔] 외에 5세기 말의 강화를 언급했다[지학사]. 대부분은 결성[비상교육·천재교육] 또는 강화만 언급했고[금성], 언급을 뺀 경우도 적지 않다[리베르·두산동아·교학사].

물론 결성만 언급하더라도 553년 신라의 한강 하류 장악과 554년 관산성 전투를 통해 나제동맹의 해체를 충분히 유추할 수 있다. 나제동맹에 대해서는 지속 기간과 강도를 제한적으로 인정한 것이 학계의 주된 흐름이다.³⁹⁾ 이에 나제동맹에 대해서는 한성 함락 이후 신라와 백제의 연합작전이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5세기 말을 중심으로 언급해야 할 것이다.

신라의 정복활동과 관련해서는 대부분의 교과서가 4세기 후반인 내물왕대에 낙동강 이동의 진한지역을 확보했다고 서술했다[천재교육·리베르·미래엔·비상교육·금성]. 이는 『국사』부터 일관되었던 서술인데, 그 범위를 낙동강 이동의 ‘가야’라 한 것은[지학사] ‘진한’의 오기일 것이다. ‘낙동 이동’만 기재한 것은[교학사] 상류의 낙동강 이서를 무시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두산동아 교과서는 내물왕대의 영토를 기술하지 않았는데, 이는 일부 2011년 『한국사』와 공통된다[비상교육·천재교육]. 『역사』에서는 천재교육 교과서가 이를 다루지 않았지만, 4세기 지도에서는 신라가 진한 지역을 포함하고 있다. 고구려와 백제의 성장에 대해서 영토 변화를 모두 묘사한 점과 비교할 때, 신라에 대해서도 진한 지역에 대한 정복활동을 기술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상의 서술은 『삼국사기』 신라본기에서 신라가 진한

39) 양기석, 「5~6세기 전반 신라와 백제의 관계」, 『신라문화재학술발표회논문집』 15, 경주시·신라문화선양회, 1994, 82~88쪽; 정운용, 「나제동맹기 신라와 백제 관계」, 『백산학보』 46, 백산학회, 1996, 104쪽, 123쪽.

지역을 확보한 시기를 3세기 중후반으로 기록한 점과 어긋난다. 그 실상에 대한 견해는 매우 다양하게 제출되었지만, 이를 4세기 후반으로 내리는 견해는 같은 시기에 신라의 사신이 前秦으로 파견된 점을 실질적인 근거로 삼았다.⁴⁰⁾ 그런데 이미 3세기 후반부터 辰韓王이 확인되므로⁴¹⁾ 3세기 후반 진한의 복속을 기술해도 무방할 것이다.

6세기 중엽에는 신라가 대가야와 함경남도 동해안 외에 특히 한강유역을 장악함으로써 삼국 간의 항쟁에서 주도권을 잡았다는 서술이 기존 교과서를 계승해 거의 공통적으로 이루어졌다. 다만 금성·두산동아 교과서가 한강유역 장악만 언급했을 뿐이다. 그런데 한강유역은 한반도의 허리에 해당하고 신라가 끝까지 고구려·백제에게 빼앗기지 않았다는 점에서 전략적으로 막중한 역할을 담당했다. 이에 한강유역 장악의 전략적 중요성은 반드시 언급되어야 한다.

그런데 지학사 교과서는 진흥왕의 대외정복을 통해 倭로의 교통로가 확보되었다고 하였다. 이는 낙랑군에서 왜로 가는 중간 기착지였던 금관가야의 복속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금관가야는 이미 법흥왕 19년(532)에 신라에 복속했으니⁴²⁾, ‘왜로의 교통로 확보’는 진흥왕대와 무관했다. 이에 대해서는 수정 서술이 요구된다.

고구려를 비롯한 삼국의 성장은 3세기 초 이후 위·진·남북조라는 분열시대를 배경으로 하였다. 그런데 589년 수가 남북조를 통일하면서 이와 국경을 접한 고구려는 커다란 위기에 직면했다. 수와 고구려의 적대관계는 결국 수의 대규모 침공을 가져왔다.

이와 관련하여 대부분의 교과서는 고구려의 선제공격과 수의 1·

40) 今西龍, 『新羅史研究』, 近澤書店, 1933[이부오·하시모토 시게루 옮김, 『이마니시 류의 신라사 연구』, 서경문화사, 2008, 58쪽].

41) 『삼국사』 권97 東夷列傳 辰韓.

42) 『三國史記』 권4 新羅本紀 法興王 19년.

2차 침공, 그리고 당의 1·2차 침공을 서술했다. 이를 격퇴함으로써 고구려는 한반도[리베르·천재교육·교학사] 내지 우리 민족의 활동 무대[금성], 백제·신라를 중국의 침략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미래엔]. 이는 원래 제5차 교육과정 『국사』에서 ‘민족수호의 의의’를 지녔다고 했다가 제7차 교육과정 『국사』에서 이를 순화해 ‘한반도에 대한 침략 저지’라고 한데서 연유하고 있다. 일부 2011년 『한국사』[미래엔]와 대부분의 『역사』 교과서도 이렇게 서술했다. 2011년 미래엔 『한국사』와 미래엔·두산동아 『역사』는 여전히 민족 내지 신라·백제에 대한 방과제 역할을 강조했다. 반면 현행 『한국사』의 일부는 격퇴 사실이나[지학사] 고구려의 국제적 위상 향상[두산동아], 나·당연합의 가능성 확대 정도만 언급했다[비상교육]. 현행 『한국사』는 대체로 고구려의 수당전쟁과 관련하여 민족사적 의미보다 전쟁의 객관적 결과에 중점을 두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고구려 수·당전쟁은 모든 교과서에서 신라에 의한 통일전쟁의 서막으로서 제시되었다. 고구려 원정에 실패했던 당과 7세기 초부터 고구려·백제에 의해 심각한 압박을 받았던 신라가 서로 연합해 통일전쟁을 일으켰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642년에는 백제가 대야성 외에 신라의 서쪽 40여 성을 함락해 수도인 경주로 연결되는 통로를 위협했고, 백제·고구려가 연합하여 당으로 가는 항구인 신라의 당항성을 함락했다.⁴³⁾ 이와 관련하여 일부 교과서는 김춘추가 고구려와 왜로 파견되어 연합을 모색하다 실패했다고 서술했다[두산동아·천재교육]. 그 대상을 고구려만 언급한 경우는[비상교육·지학사·금성] 『국사』 이래의 서술을 따른 것이다. 나머지 교과서는 이를 생략했다. 위 활동을 언급한 비율은 2011년 『한국사』보다 약간 높은 편이고, 대부분의 『역사』

43) 『三國史記』 권5 新羅本紀 善德王 11년.

교과서는 고구려·왜에서의 활동을 언급했다. 그런데 김춘추가 왜와의 연합을 추구하기 위해 파견된 점은 분명하고, 이러한 시도가 신라의 입장에서는 국운을 건 노력의 하나였다. 그렇다면 고구려·왜에 대한 연합 노력을 모두 기재해야 할 것이다.

이후 648년 김춘추는 당으로 건너가 태종과 나·당연합을 결성하는 데 성공했다. 이를 근거로 660년 신라군은 황산벌 전투를 치른 뒤 당군과 합세해 사비성을 함락했다. 668년에는 나·당연합군이 평양성을 함락했다. 이후 한반도 전체에 대한 당의 지배 시도 때문에 나·당전쟁이 발발하여 그 결과 삼국통일이 완성되었다고 모든 교과서가 서술했다.

그런데 백제와 고구려의 멸망 요인으로서 대체로 지배층의 분열이 지적되었다[지학사·미래엔·두산동아·천재교육·교학사]. 이는 타당한 지적이긴 하지만, 패전의 요인을 대표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특히 교학사 교과서는 『국사』처럼 백제 지배층의 향락생활을 내세웠는데, 이는 국가 존망의 기준을 주관적인 요소로 평가하는 위험을 안고 있다고 판단된다. 통일전쟁의 성공요인에서는 김춘추의 외교적 노력과 김유신의 군사적 공적이 강조되었으니, 고구려·백제의 패전 요인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준의 실패 요인이 제시되어야 한다.

통일전쟁에 대해서는 제1차 교육과정 이래 민족사적 의의를 계속 강조해 왔는데, ‘집필기준’에서도 삼국통일로 민족문화의 바탕이 이루어졌다고 제시했다.⁴⁴⁾ 대부분의 교과서는 이를 고려해 대동강 이남이라는 영토적 한계, 외세 이용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반면 신라가 당의 야욕에 대해 항전함으로써 삼국통일은 자주적 성격을 지녔다고 하였다. 궁극적으로는 이를 통해 민족문화 발전의 토대가 마련되었다고 평가했다. 지학사 교과서는 ‘역사터하기’ 코너에서 삼국

44) 교육과학기술부, 앞의 책, 2011.12.30, 3쪽.

통일의 의의와 한계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이해를 도왔다. 이러한 서술은 한국의 상황에서는 어느 정도 타당성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당 태종은 김춘추와 나·당연합을 약속한 이듬해인 649년에 사망하여 당이 약속을 즉시 실행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신라는 650년에 당의 연호를 채용하고 김춘추의 아들 법민을 숙위로 파견하면서 원군을 요구했으나, 당은 651년 백제에 사신을 보내 신라로부터 빼앗은 성을 돌려주라고 요구할 뿐이었다.⁴⁵⁾ 실제로는 고구려를 지속적으로 공격하는 데 치중했다. 660년 3월 당의 지원군 파견은 이러한 시도가 계속 실패로 돌아간 상황에서 전략을 수정한 결과에 가까웠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하면, 당 태종과 김춘추의 협약에 따라 당의 원정군이 파견되었다고 단순하게 서술하는 것은 그 사이의 12년간 공백을 무시하여 합리적인 이해를 가로막는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위 협약이 660년에야 이행된 이유를 간단하게라도 서술해야 할 것이다.

나당전쟁의 서술에서 교학사 교과서는 매소성·기벌포 전투의 이유가 안동도호부·웅진도독부·계림도독부 설치인 것처럼 서술했다. 매소성·기벌포 전투는 신라가 나당전쟁을 승리로 이끈 결정적인 사건이었다. 이는 순서적으로는 맞지만, 그 사이에는 나당전쟁의 개시와 전황 변화가 삽입되어야 인과관계가 성립할 수 있다.

그런데 영토문제에 대한 김춘추와 당 태종 사이의 협약은 732년 발해의 등주 공격을 계기로 실질적으로 이행되었다. 그 이듬해에 가서야 당이 신라의 대동강 이남 영유를 승인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거의 모든 교과서는 발해의 등주 공격 이유를 당이 흑수말갈을 이용해 발해를 견제한 데 있다고 서술했다. 이는 『국사』 아래의 서술을 계승한 것이다. 그런데 일부 교과서는 당에 협조하기 위해 신라가 발해의 남부를 공격했다고 서술했다[미라엔·리베르].

45) 『三國史記』 권28 百濟本紀 義慈王 11년.

나당전쟁에 승리한 뒤에도 신라는 사실상 멸약산맥 이남을 지배하는 데 주력했다. 당으로부터 대동강 선에 대한 지배를 인정받은 뒤 신라는 8세기 중엽의 경덕왕대까지 패서 지역에 14군현을 설치하고 태수를 파견하는 등 행정구역으로의 편입을 완료할 수 있었다.⁴⁶⁾ 이상의 과정이 서로 연동된 점을 고려하면, 통일전쟁의 영토사적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732년 발해의 등주 공격과 733년 신라의 발해 공격이 연계 서술되어야 한다.

신라의 발해 공격은 실패로 끝났는데, 두산동아 교과서는 발해가 나당연합군의 공격을 막아냈다고 했다. 이는 통일전쟁 당시의 나당연합군을 연상시키는데, 733년에도 당군과 신라군의 작전이 상호 연계되었을 가능성은 있다. 하지만 신라군의 공격대상지는 불분명하다. 이에 신라군과 당군이 서로 만나 함께 작전을 벌인 취지로 서술하기 다 신라군의 공격을 별개로 서술하는 편이 더 합리적일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교학사 교과서는 당이 신라로 하여금 발해를 공격하게 했다고 서술했다. 이는 기본적으로 타당하지만, 신라군이 단순히 피동적인 역할만 했다는 취지로 비칠 수 있다는 점에서 신라의 주체적 판단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수정되어야 한다.

발해는 선왕대에 ‘해동성국’으로 상징되는 전성을 누리다가 926년 거란의 침공으로 멸망했다. 『한국사』 교과서들은 그 요인으로서 발해 귀족들 간의 내분과 유목민족인 거란의 세력확장을 지목했다. 이는 『국사』 이래의 서술을 계승한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천재교육 교과서는 907년 당의 멸망과 5대10국의 혼란에 따른 유목민족의 재흥기라는 국제정세 변화를 언급했다.

다시 찾아온 중국의 분열은 발해의 멸망뿐 아니라 후삼국의 운명 과도 적지 않은 관계를 가졌다. 이런 점에서 발해·거란의 전쟁에서는

46) 조이옥, 『통일신라의 북방진출 연구』, 서경문화사, 2001, 177쪽.

국제정세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특히 925년 9월까지 거란의 서방 원정이 성공적으로 끝난 점은 발해 원정의 가능성을 높인 배경으로서 언급되어야 한다.

거란의 발해 침공은 925년 12월 파림좌기 출발부터 926년 1월 12일 상경성 함락까지⁴⁷⁾ 속전속결로 이루어졌다. 이는 기병 중심의 전투운영을 보여주는데, 발해군의 방어는 대체로 미약했다. 자료상의 한계가 있지만, 방어체계의 미비가 발해 멸망의 요인 중 하나로 서술되어야 한다.

이 무렵 한반도에서는 후삼국 간의 대치가 지속되다가 936년 고려가 재통일을 이루었다. 이 전쟁에 대해서는 일부 교과서가 공산전투와 [비상교육] 고창전투를 언급한 정도이다[금성]. 이렇게 기술이 미미한 것은 『국사』와 2011년 『한국사』에서 후삼국 전쟁의 서술이 전무하고 『역사』에서도 일부 교과서가 고창전투만 언급한 점과[미래엔·비상교육·천재교육]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927년의 공산전투는 낙동강 중류에서 후백제가 고려군을 압도했던 상황을 보여준다. 930년의 고창전투는 고려가 이러한 기세를 역전시켰다는 점에서 중요한 분기점이 되었다. 그런데 후백제가 멸망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936년 9월 일리천[구미] 전투에서 후백제군이 대규모 패배를 당한데 있었다. 그렇다면 후삼국 간의 전쟁에서는 일리천전투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서술해야 한다.

후삼국 통일의 성공 요인과 관련해서는 『국사』 이래로 궁예의 지나친 조세와 견훤의 호족 포섭 실패와 대비하여 왕건의 호족 우대가 강조되었다. 현행 『한국사』의 모든 교과서도 이를 따랐다.

그런데 이는 고려의 후삼국 통일이라는 결과를 기준으로 고려의 왕건에 대해서만 긍정적인 입장을 취한 것이다. 호족에 대한 우대는 왕건의 전유물이 아니었다. 궁예가 후고구려를 세우고⁴⁸⁾ 견훤이

47) 송기호, 「발해의 쇠퇴와 멸망」, 『한국사』 10, 국사편찬위원회, 1996, 78~79쪽.

후백제를 세우는 과정에서도 호족에 대한 포섭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⁴⁹⁾ 궁예의 조세가 지나쳤다는 것도 그를 몰아내고 집권한 왕건이 조세감면을 내세웠던 점과 비교 평가된 측면이 강하다고 생각된다. 궁예는 적어도 건국 과정에서는 피지배층의 지지를 이끌어내는 데 관심을 기울였다.⁵⁰⁾ 그렇다면 조세 자체보다 태봉 말기 궁예의 전제정치에 따른 호족 간의 이해관계 변화가 고려 건국의 실질적 배경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4. 고대 전쟁사 지도의 특징과 문제점

역사교과서에서 전쟁사 지도는 전쟁의 흐름을 쉽게 파악할 수 있게 하는 효과적인 수단이다. 반면 부족한 자료를 가지고 전쟁을 시각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많은 공력을 필요로 한다. 작은 실수가 역사의 실상을 왜곡할 위험부담도 큰 편이다. 그러면서도 전쟁사의 이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신중한 제작이 필요하다.

제7차 교육과정 『국사』부터 교과서 판형이 커지면서 고대 전쟁사 지도의 역할도 더욱 커지게 되었다. 반면 2011년 『한국사』에서는 전근대사 부분이 크게 축소되면서 전쟁사 지도의 비중도 줄어들었다. 현행 『한국사』에서는 고대사가 하나의 장으로 독립하면서 고대 전쟁사의 비중은 다시 상대적으로 늘어났다. 하지만 한국사의 각 분야를 전체적으로 다루어야 하는 형편상 고대 전쟁사 지도를 무한정 자세하게 신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에 각 교과서의 집필자들이 지도의 선정과 편집에 고심한 흔적을 읽을 수 있다. 여기서는

48) 조인성, 『태봉의 궁예정권』, 푸른역사, 2007, 78~84쪽.

49) 신호철, 『후백제 전환정권연구』, 일조각, 1993, 86~100쪽.

50) 조인성, 「태봉」, 『한국사』 11, 국사편찬위원회, 1996, 138~141쪽.

지도의 선정, 제작의 근거, 이해의 효율성을 기준으로 현행 『한국사』에 실린 고대 전쟁사 지도의 특징과 문제점을 제시하겠다.

우선 고조선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교과서가 『국사』나 2011년 『한국사』·『역사』처럼 세력범위 지도만 실고 전쟁지도를 실지 않았다. 다만 금성교과서만이 고조선·한 전쟁 지도를 별도로 실었다 <지도1>. 이는 역사 교과서에서 고조선의 전쟁 지도를 처음으로 실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 지도에서는 패수의 청천강 설을 따르고서 기원전 109년 한이 1차 침공시 패수에서 격퇴된 상황을 설명했다. 이와 함께 왕검성[평양]의 함락을 가져왔던 기원전 108년의 2차 침공도 표현했다. 양측 군대의 진군 경로와 전투 위치는 육군본부에서 제작된 <漢軍의 衛氏朝鮮 侵略 要路>와⁵¹⁾ 유사한 내용을 보이고 있다.

‘집필기준’에서는 고조선의 중심지와 관련하여 평양 중심설, 요동 중심설, 이동설 등을 균형있게 유의하되 고고학적 연구성과를 반영하도록 권장했다.⁵²⁾ 위 지도에서 패수를 천청강으로 본 것은 한국 식 동검의 분포 범위를 중시하는 견해를⁵³⁾ 수용한 것인데, 위 교과서의 ‘더 알아보기’ 코너에서는 세 가지 설이 공존함을 제시했다. 청동검 문화권 지도에서는 모든 교과서가 중심지를 특정하지 않고 지도에 ‘평양만을 제시하여 왕검성이 평양일 가능성만 우회적으로 시사했다. 대신 일부 교과서는 ‘자료로 보는 역사’ 코너[두산동아], 도움글[리베르], 더 알아보기 코너[교학사], 본문 측면의 날개 설명으로 위 세 가지 설을 기술했다[천재교육]. 반면 미래엔·비상교육·지학사 교과서는 이를 기술하지 않았다. 특히 지학사 교과서는 ‘위만 조선의 팽창’ 지도에서 세력확장의 출발점을 평양에 표시함으로써 왕검성이 평양임을 사실상 받아들였다. 미래엔 교과서는 라오닝

51) 육군본부, 『한국고전사』 I-고대편-, 1975, 21쪽.

52) 교육과학기술부, 앞의 책, 2011.12.30, 2쪽.

53) 송호정, 『한국 고대사 속의 고조선사』, 푸른역사, 2003, 344~350쪽.

지방에서 한반도 북부 지역까지 세력을 확대했다고 언급했다. 교학사 교과서는 본문에서 중심지 이동설을 수용했다.

이상과 같이 고조선의 중심지에 대해서는 교과서들의 절반만이 ‘집필기준’을 준수했다. 왕검성은 평양성으로 비정되다가⁵⁴⁾ 1980년대에는 요서의 난하 유역설이 부각되어 논쟁의 대상이 되어 왔다.⁵⁵⁾ 최근 학계에서는 대체로 평양설을 인정하고 있지만, 요동설도 제기되었다.⁵⁶⁾ 이 견해는 고조선이 연과 경계를 마주한 점, 한군의 침공 경로가 요동과 발해만을 거쳤다는 점에 근거하고 있다. 한군의 침공 사료만으로 보면 왕검성의 위치 비정에서 모호성이 인정될 수도 있다. 하지만 연 장군 진개의 침공 이래 고조선의 서쪽 경계가 크게 후퇴한 점, 평양에서 수없이 발굴된 낙랑군 관련 유적으로 보아 함락 당시 왕검성의 위치는 평양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금성교과서의 지도에서 왕검성을 평양으로 표기한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하지만 1차·2차 침공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 기원전 108년의 상황으로 표현한 것은 1차와 2차로 구분되어야 한다.

고조선의 남쪽 경계는 경인 지역과 한강선으로 표현되었다. 그런데 낙랑군에 소속된 현의 범위가 평안도·황해도·함경남도 일대에 걸친 점을 고려하면⁵⁷⁾ 예성강 내지 임진강선으로 표현해야 할 것이다.

삼국 간의 영토경쟁에서 논란이 많은 부분은 장수왕대 고구려의 남하선이다. 5세기 고구려 영역 지도에서 고구려의 남계로 아산만-영일만 선을 취한 것은 [리베르·천재교육·교학사] 『국사』 이래 2011년 『한국사』 교과서 전체와 『역사』의 대다수를[비상교육·지학사·대교·교학사(양호환 / 신영범)] 따르는 것이다. 이는 481년 고구려

54) 패수 청천강설과[이병도, 『한국고대사연구』, 박영사, 1985, 66쪽] 압록강설은 [『新增東國輿地勝覽』 平安道 平壤府 山川 大同江] 모두 왕검성을 평양성으로 보고 있다.

55) 윤내현, 「고조선의 강역과 사회」, 『한국상고사의 제문제』,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7, 149쪽.

56) 임용한, 『한국고대전쟁사』 1, 해안, 2011, 17~18쪽.

57) 권오중, 『낙랑군연구』, 일조각, 1992, 40~41쪽.

군이 미질부[홍해]까지 진군해 왔다는 기사에⁵⁸⁾ 근거하고 있다. 하지만 신라는 백제·가야의 지원을 받아 고구려군을 격퇴했으므로, 당시 고구려군의 진군 범위를 영토선으로 단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지도 1〉 고조선과 한의 전쟁[금성교과서]

아산만-청하 선을 취한 것은[비상교육] 『삼국사기』 지리지에서 원래 고구려 군현이었다는 범위를 중시한 결과이다. 이보다 약간 북쪽의 영덕 선을 취한 것은[미래엔·천재교육] 『역사』의 일부[천재교육·미래엔·두산동아]를 따른 것인데, 사실상 위와 유사한 입장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삼국사기』 지리지에서 옛 고구려 영토로 전하는 지역을 고구려가 실제로 차지한 시점이나 지배의 수준을 단언하기는 쉽지 않다. 475년 고구려의 한성 함락 뒤 한강 유역의 상황과 관련하여 551년까지 고구려의 한강 유역 지배설⁵⁹⁾, 백제의 한강 유역 유지설⁶⁰⁾, 백제 漢城의 직산 이동설⁶¹⁾, 동성왕대⁶²⁾ 또는

58) 『三國史記』 권3 新羅本紀 炤知麻立干 3년.

59) 今西龍, 『百濟史研究』, 近澤書店, 1934, 26쪽, 120~121쪽.

60) 정운용, 「나제동맹기 신라와 백제 관계」, 『백산학보』 46, 백산학회, 1996, 122쪽.

61) 이기백, 「웅진시대 백제의 귀족세력」, 『백제연구』 9, 충남대학교 백제연구소, 1978,

무령왕대 백제의 한강 유역 회복설⁶³⁾ 등이 다양하게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산만-강릉 선[금성] 내지 주문진 선을 취한 것은[지학사] 5세기 중후반에 신라가 하슬라[강릉]를 장악한 사실⁶⁴⁾을 존중한 결과로 보인다. 적어도 동해안 방면에서는 적용 시기와 실체가 모호한 지리지 기사보다 이 기사를 존중하는 편이⁶⁵⁾ 더 타당하다. 다만 한강 하류 방면에서는 연구자 간의 견해차를 반영해 한강 선과 아산만 선 사이에 gradation 기법을 사용해 점이지대로 표현한다면, 학설상의 대립을 인정하면서도 역사적 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학생들에게 고구려 남하정책의 실상에 대해 추론하는 기회도 제공할 수 있다.

그런데 5세기 말은 고구려의 남진뿐 아니라 신라의 서북진이라는 측면에서도 주목된다. 5세기 후반 백제가 고구려의 압력에 대비하는 상황을 이용해 신라는 삼년산성[보은]을 비롯한 금강 상류 지역으로 진출했기 때문이다.⁶⁶⁾ 이 점은 『한국사』 교과서의 5세기 지도에서 거의 무시되었다. 다만 지학사 교과서는 신라가 금강 상류를 차지한 것으로 묘사했다. 5세기 고구려 전성기의 지도는 장수왕대인 5세기 말을 염두에 둔 것이므로, 고구려의 남계는 아산만-소백산맥을 직선으로 연결하기보다 금강 상류와 남한강 유역의 분수계를 지나도록 표현되어야 할 것이다.

고구려의 남한강 유역 확보를 보여주는 비문이 2011년 『한국사』에서는 거의 기존 명칭인 ‘중원고구려비’로 표기되었고, 지학사 교과서

6~7쪽.

62) 성주탁·차용걸, 「百濟儀式考」, 『백제연구』 12, 충남대학교 백제연구소, 1981, 12쪽.

63) 양기석, 「웅진시대의 백제지배층연구」, 『사학지』 14, 단국대학교사학회, 1980, 22~23쪽.

64) 『三國史記』 권3 新羅本紀 訥祗麻立干 34년, 慈悲麻立干 11년.

65) 강중훈, 앞의 논문, 95~96쪽.

66) 이부오, 「5세기 후반 신라의 소백산맥 서쪽 진출과 지배형태」, 『신라사학보』 10, 신라사학회, 2007, 15~23쪽.

에서만 ‘충주고구려비’라 했다. 현행 『한국사』는 이를 모두 ‘충주고구려비’로 통일했다. 이는 2010년 비의 공식명칭 변화에 걸맞는 표현이다.

6세기 지도에서 모든 교과서는 신라가 함경도 동해안과 한강낙동강 유역을 차지한 것으로 표현했다. 이후 함경도 동해안을 다시 고구려에게 상실했다는 것도 마찬가지로인데, 이는 역사적 사실과도 부합한다. 지학사 교과서처럼 정복 과정을 지역마다 연대를 기준으로 간결하게 표현한 것은 학생들의 이해를 쉽게 하는 데 효과적이라 생각된다.

진흥왕의 영토확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비문의 표기는 매우 다양하다. 지학사 교과서는 모든 비문에 대해 ‘지명+비’로 일관되게 표현했다. 단양적성비에 대해서 대부분의 교과서가 공식 명칭인 단양신라적성비라 했는데, 두산동아 교과서만 단양적성비라 했다. 북한의 문화재인 황초령비·마운령비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교과서가 이와 동일하게 표기했는데, 비상교육은 ‘순수비’를 붙였다. 공식 명칭인 북한산신라진흥왕순수비·창녕신라진흥왕척경비에 대해서는 북한산비·창녕비[천재교육·두산동아·리베르·금성], 북한산순수비·창녕척경비[비상교육], 서울북한산순수비·창녕신라진흥왕척경비[교학사] 등으로 다양하게 표현했다.

이 중에서 단양적성비는 순수비가 아니고 신라의 변경 통치와 관련하여 지방민들의 협조를 현양하기 위해 건립되었다. 순수비인 나머지 4비는 공식 명칭을 붙이는 방법이 서로 일치되지 않아 교과서의 지도에서도 일관성을 지키기가 어려운 편이다. 학생들의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는 지학사 교과서처럼 지명만 간결하게 표현하되 보충설명이나 본문에서 비문의 성격을 언급하는 게 효율적일 것이다. 다만 고구려 영토에 표기된 황초령비는 신라 영토에 붙여야 한다.

고구려의 대수·당전쟁은 장기적으로 통일전쟁의 배경이 되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교과서가 두 전쟁을 하나로 통합한 지도내[금성·

두산·교학사] 별도의 두 지도[지학사·리베르] 또는 대당전쟁도만 실었다[비상천재교육]. 미래엔 교과서는 당시의 ‘동아시아 국제정세’ 지도만 실고서 고구려의 수·당전쟁 지도를 실지 않았다. 수·당전쟁 지도를 실은 비율은 2011년 『한국사』와 유사한 편이다. 『역사』는 교학사[신영범]를 제외한 모든 교과서가 대수전쟁도와 대당전쟁도를 별도로 실었다. 이러한 차이는 관점의 차이보다 지면 수와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전쟁의 이해를 위해서는 대수전쟁도와 대당전쟁도를 별도로 실어야 하지만, 한정된 지면에서 이를 모두를 실어야 하는지는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이다.

이와 관련하여 7세기 초의 국제정세를 설명하기 위해 실은 지도가 주목된다. 당시에 수·당-신라의 동서세력과 돌궐-고구려-백제-왜의 남북세력이 대립했다고 지도상에 표현한 것이다[리베르·천재교육·비상교육·미래엔]. 돌궐-고구려가 상호 접촉한 점은 분명하며, 백제-왜가 우호관계였던 것도 잘 알려져 있다. 하지만 돌궐-고구려-백제-왜 모두가 하나의 연합을 구성했다는 근거는 희박하다. 그렇다면 적어도 이 지도보다는 역사적 실체가 분명한 수·당전쟁도를 우선으로 실어야 한다.

그런데 교학사 교과서 ‘수와 당의 고구려 침입’ 지도에서는 수 양제의 침공시 주된 전투장소가 요동성이 아닌 개모성으로 표시되었다. 이는 신성·개모성 2성의 위치를 3군데로 잘못 표시한데서 온 편집상의 문제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고구려수 전쟁에서 심각한 오류를 범했다<지도 2>.

금성교과서의 ‘고구려와 수·당전쟁’에서는 수에 대한 고구려의 선제공격 대상이 임유관으로 표시되었는데, 실제로는 영주였다. 그 치소는 오늘날의 조양에 해당하는데, 공격대상이 중심 치소인지 주변부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선제공격 방향을 일단 영주로 향하게 표현해야 할 것이다.



〈지도 2〉 수와 당의 고구려 침입[교학사 『한국사』]

리베르 교과서는 4차에 걸친 수의 침공과 3차에 걸친 당의 침공을 모두 지도로 표현했다. 이는 충실한 이해에는 도움이 될 것이다. 지도 디자인도 양호한 편이지만, 문제점도 없지 않다. 예를 들면 ‘고구려와 수의 전쟁’에서 고구려의 선제공격 방향은 개모성으로부터 서북쪽으로 모호하게 되어 있다. 또한 수 문제의 원정군은 유성에서 바로 회군했다고 표현되었는데, 실제로는 요하 주변까지 왔었다. 이는 고구려의 선제공격과 수의 4차에 걸친 침공을 모두 표현하면서 초래된 편집상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 같다. 학생들의 효과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2회 정도로 줄여 표현하는 편이 바람직해 보인다.

또한 ‘고구려와 수의 전쟁’에서는 고구려의 영역이 부여성 이북으로 멀리 뻗어 있는데, ‘고구려와 당의 전쟁’에서는 부여성에 간신히 걸쳐 있다. 특별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는 한 고구려의 북쪽 경계를 일치시켜야 한다.

대부분의 교과서에서는 수·당전쟁의 격전지를 기호로 표시했다. 이와 관련하여 리베르 교과서는 당군에게 함락당한 요동성·백암성·개모성·비사성을 본문에서 언급했고, 일부 성만 언급한 경우도 있다[지학사·교학사·금성·비상교육]. 함락당한 성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기호로 표시하면 다른 격전지와 비교하거나 전황을 이해하기가 용이할 것이다.

삼국통일과 관련해서는 모든 교과서가 나당전쟁도만을 실었다. 이는 『국사』 및 2011년 『한국사』 교과서들을 계승한 셈이다. 그런데 신라의 통일전쟁은 일차적으로 고구려·백제의 멸망을 추구한 것이었고, 나당전쟁을 통해 일단락되었다. 이런 점에서 나당전쟁도의 게재는 과정보다 결과에 중점을 둔 것이다. 또한 통일전쟁의 방향을 민족 간의 항쟁보다 대외항쟁에 돌림으로써 단일민족의 형성이라는 역사적 의미를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통일전쟁은 기본적으로 나·당연합군과 백제·고구려 간의 충돌로 발발했다. 이런 점에서 백제·고구려와의 전쟁이 지도로 표현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비상교육 교과서는 대부분의 2011년 『역사』처럼 ‘백제·고구려의 부흥운동’ 지도를 별도로 실었다. 지학사 『역사』는 ‘나·당연합군의 백제 공격로’를 실었다. 삼국통일 과정상의 중요도로 보면 적어도 부흥운동 지도보다 ‘나·당연합군과 백제·고구려의 전쟁’ 지도가 더 우선해야 한다.

현행 『한국사』의 나당전쟁도를 살펴보면, 평양에 근거한 당군과 한주에 근거한 신라군이 임진강~한강 사이에서 대치하는 상황을 묘사했다. 그중에서도 675년의 매소성전투와 676년의 기벌포전투를 강조한 것은 나당전쟁의 종결이라는 면에서 타당한 묘사이다.



〈지도 3〉 나·당전쟁[천재교과서]

그런데 중요한 격전지였던 마전[연천]은 당시의 지명으로 표기되었다. 칠중성에 대해서는 모든 2011년 『한국사』처럼 대부분의 현행 『한국사』가 현지명인 ‘적성’이라 표기했다[천재·비상·리베르·미래·지학사·교학사]〈지도 3〉. 삼국시대에는 ‘적성’이 현 안성시 양성면을 가리켰다.⁶⁷⁾ 이에 위 지도의 ‘적성’은 고대 지명과 현대 지명을 뒤섞으면서 발생한 불일치라 할 수 있다.

그중에서도 일부 교과서는 임진강 동남쪽의 칠중성을 예성강 인근

67) 『三國史記』 권35 地理2 漢州 白城郡.

[천재] 내지 임진강 서북쪽에 표기했다[리베르·미래엔·지학사]. 천재교과서는 임진강 상류의 매소성을 현 적성의 서북쪽에 표시했다. 이러한 편집상의 오류도 시정되어야 한다.

나당전쟁의 종결과 관계깊은 전투에 대해서 일부 교과서는 ‘매소성의 대승’ ‘설인귀의 해군 격파’[미래엔·두산동아] 또는 ‘당의 해군 격파’라고 표현했다[지학사]. 이는 『국사』의 영향을 받은 것인데, 승리의 주체를 매소성 또는 설인귀로 오해할 소지가 있다.⁶⁸⁾ 또한 ‘해군’보다 ‘수군’이 당시의 실상에 합당할 것이다.⁶⁹⁾ 이런 점에서 ‘매소성·기벌포에서 승리’가[리베르] 온당한 표현이다.

일부 교과서에서 지명과 전투명을 중복시킨 경우는[비상교육·금성] 이를 합쳐 단순하게 표현하는 편이 효율적일 것이다. 중요 전투 지명과 일반 지명을 같은 글씨로 사용한 경우에는[천재교육] 양쪽의 글자체를 다르게 표현할 필요가 있다.

후삼국 통일전쟁과 관련하여 일부 교과서는 ‘후삼국 통일’ 지도만 실었다[금성·교학사·리베르·두산동아]. 이는 『국사』를 따른 것이다. ‘후삼국 성립’ 지도를 별도로 실은 교과서들은[천재교육·지학사·비상교육] 『역사』를 따른 것이다. 미래엔 교과서는 ‘10세기 초 동아시아 정세도’만 실었다. 이 중에서 ‘후삼국 통일’만 실은 경우에는 지도 내의 정보가 비교적 많은 편이다. 특히 후삼국의 건국·전투·멸망을 한꺼번에 묘사한 금성교과서의 지도는 정보량이 과다하다고 생각된다. 평균적으로 보면, 각 교과서에 이 지도는 왕조별 건국·멸망의 시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전투정보로서는 천재교육 교과서가 공산·고창 전투를 표기했고, 금성교과서가 일리천전투를 추가했다. 두산동아는 화살표로 진격로만 표시했다. ‘후삼국 통일’이라는 제목을 내세우기 위해서는 무엇

68) 이 점은 이미 지적된 바 있다[이부오, 앞의 논문, 2012, 334쪽].

69) 이상훈, 「중등학교 역사교과서의 나당전쟁 서술과 개선방향」, 『역사교육』 120, 역사교육연구회, 2011, 352쪽.

보다도 통일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전투를 우선적으로 표시해야 할 것이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후백제의 주도권 장악을 보여준 공산 전투(927), 대결의 주도권이 고려로 돌아오는 계기가 된 고창전투(930), 후백제 멸망의 결정적 계기가 된 일리천전투(936)는 표기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후삼국 전쟁의 관건이 낙동강 상류의 주도권 장악에 있었다는 점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데에도 효과적이다.

후삼국의 대치선은 호족들의 입장 변화에 따라 수시로 변했기 때문에 지도로 표현하기가 쉽지 않다. 일시적인 공격 후에 회군한 경우는 영토로 표현하기도 곤란하다. 다만 ‘후삼국 통일’을 주제로 한다면 930년대 전후의 대치선을 중심으로 표현하는 편이 가장 합당할 것이다.

현행 『한국사』의 ‘후삼국 통일도’는 거의 『국사』를 바탕으로 제작되었다. 930년 전후를 기준으로 보면 이 지도는 대체로 역사적 사실과 부합한다. 다만 신라가 남강 유역을 거의 유지했다고 모든 교과서의 지도에서 표현된 점이 주목된다. 후백제는 920년에 대야성[합천]을 함락했고, 925년에는 거창 등 20여 성을 취했다. 928년에는 강주[진주]를 차지했다.⁷⁰⁾ 하지만 이러한 정복활동이 후백제의 영토로 굳어졌는지는 아직 불확실한 편이다. 그렇다면 남강 유역을 신라의 영토로 표시하되 거창 방면과 강주 방면에 대해 후백제의 진군로를 표현해야 할 것이다.

5. 고대 전쟁사 서술의 개선방향

본장에서는 앞서 언급한 2014년 『한국사』의 고대 전쟁사 서술에

70) 최중석, 「후삼국통일전쟁과 고려 군제의 성립」, 『한국군사사』 3, 육군본부, 2012, 34쪽, 40쪽.

나타난 성과와 문제점을 바탕으로 향후 서술의 개선방향을 모색해 보려 한다.

첫째, 전쟁사의 맥락에서 차지하는 각 전쟁의 위상을 기준으로 살펴보자. 여기서 비중있게 다루어진 것은 고조선의 멸망, 고구려의 대 중국 항쟁, 삼국 간의 항쟁, 신라의 통일전쟁, 후삼국 재통일 전쟁이다. 이상은 한민족이 국가를 세우고 단일민족국가로 통합되는 역사적 맥락을 중시하고 있다. 전쟁별 서술의 비중은 이 과정에서 차지하는 중요도를 고려한 것이다. 이러한 서술의 맥락은 국가와 민족을 강조함으로써 고려-조선을 거쳐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역사적으로 확보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는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함양하게 한다는 2009 개정 교육과정 고등학교 『한국사』의 교육목표와⁷¹⁾ 부합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대중국 항쟁은 삼국의 성장과 민족의 통합에서 한민족이 자주성을 지켜냈다는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서술은 결과적으로는 학문적 타당성을 어느 정도 갖추고 있으나, 구체적인 부분에서는 문제점도 없지 않다.

예를 들면 리베르 교과서는 고조선이 멸망한 뒤 왕검성에 설치된 낙랑군을 조계지 정도로 평가했다. 이는 김원룡의 설을 바탕으로 한 것인데⁷²⁾, 문헌적·고고학적 근거로 볼 때 군현지배를 부정하기는 곤란할 것이다. 이를 조계지로 평가하는 것은 중국 세력에 의한 한반도 지배를 인위적으로 부정하는 측면이 있다.

백제의 ‘요서 진출’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역사적 사실로 검증이 불완전한 상태에서 『국사』 단계부터 서술되었고, 일부 『한국사』 교과서도 이를 계승하였다. 이는 한민족 고대국가의 발전을 강조하기 위해 무리하게 서술된 측면이 있다.

71) 교육과학기술부, 앞의 글, 2011.12.16, 190쪽.

72) 김원룡, 『한국고고학연구』, 일지사, 1987, 532쪽.

7세기 초에 ‘돌궐-고구려-백제-왜’가 남북연합을 형성해 ‘수·당-신라’의 동서연합과 대결했다는 서술의 문제점도 앞서 언급되었다. 이 중에서 전자는 돌궐-고구려의 우호관계와 백제-왜의 우호관계를 전제로 인위적으로 설정된 측면이 있다. 이는 589년 수의 남북조 통일이라는 동아시아 정세의 급변과 관련하여 고구려와 백제가 능동적으로 대처했다는 점을 드러내기 위해 학문적 위험을 감수한 것이다.

역사교과서에서 민족의 운명을 개척하기 위한 노력을 어느 정도 강조할 필요성은 있을 것이다. 하지만 학문적 근거가 부실한 상태에서 과장되게 서술하는 것은 민족의 운명을 개척하려 했던 주인공들의 소중한 경험을 왜곡할 우려가 있다. 향후 한민족의 내실있는 발전을 위해서라도 민족을 강조하는 관점은 학문적 근거를 담보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분열기의 상호 항쟁을 다루는 과정에서는 민족과 국가를 중시하는 관점이 상호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면 삼국 간의 항쟁에서는 4세기 백제의 근초고왕, 5세기 고구려의 광개토왕·장수왕, 6세기 신라의 진흥왕이 전성을 누린 주체로서 강조되었다. 이 중에서 5세기 말 고구려의 남하선과 관련해서는 사료를 통해 추정할 수 있는 최대치를 상정함으로써 백제와 신라의 실제 영토를 줄이는 위험을 감수하는 경향이 있다. 결과적으로 고구려의 강성을 강조하기 위해 민족 내의 다른 국가의 영역을 위축시킨 것이다.

후삼국 간의 전쟁에서는 고려와 태봉, 후백제에 대해 불균형하게 서술한 점은 앞서 지적되었다. 민족을 재통일한 고려를 특별히 우호적으로 서술하는 태도는 현존하는 자료로는 김부식의 『삼국사기』에서 비롯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거의 모든 교과서가 왕건의 호족우대 정책을 후삼국 통일의 중요한 동력으로 설명한 반면, 견훤과 궁예가 추진했던 호족포섭 정책을 무시했다. 이는 전쟁의 결과인

후삼국 통일을 중시한 나머지, 여기에 이르는 과정을 왜곡한 것이다. 그렇다면 후삼국 전쟁에 대해서는 호족들을 둘러싼 각국의 포섭 방식과 전략의 차이를 기준으로 서술할 필요가 있다.

결국, 전쟁사 서술에서 민족과 국가의 가치가 상충될 경우 이를 균형있게 서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전쟁사 지도에서는 『국사』의 영향이 두드러진다. 지도의 선정, 표시 정보, 편집방향을 새롭게 설정하기보다 국정교과서 단계의 것이 대체로 활용되었다. 일부 새롭게 보강된 내용은 역사적 사실과 대체로 부합하는 편이다. 하지만 전쟁사의 이해를 보다 효율적으로 돕기 위해서는 좀 더 보완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자료가 부족한 고조선·한 전쟁 같은 경우에는 내용 요소를 명확히 표현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편이다. 하지만 패수전투와 왕검성전투 같은 흐름을 친절하게 설명하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할 것이다. 반대로 고구려 수·당전쟁이나 후삼국 전쟁은 정보의 양에 치중할 경우 학생들이 지도의 초점을 잡아내기 곤란할 수 있다. 이에 필수적인 정보를 중심으로 간결하게 표현하는 편이 오류를 줄이고 학습효과를 높일 수 있다.

셋째, 사진자료는 본문과 지도의 내용을 보완하기 위한 좋은 수단인데, 현재의 상황에서는 적지 않은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예를 들면 삼국통일이 민족문화 발전의 토대가 되었다는 것은 『국사』 이래 꾸준히 서술되어 왔지만, 그 근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언급된 바가 거의 없었다. 이와 관련하여 금성교과서는 고구려의 토기가 오늘날의 옹기로 전승되었음을 사진을 활용해 강조했다. 이는 신라의 통일전쟁이 민족문화의 형성을 가져왔다는 근거를 구체적으로 언급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 사진에서 고구려토기와 현대 옹기의 측면 형태가 유사한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고구려 토기의 도드라진 손잡이와 달리, 옹기는

사진상으로는 손잡이가 보이지 않는다. 뚜껑이 없는 고구려 토기는 입술 부분이 밖으로 벌어졌는데, 현대 용기는 뚜껑을 덮어놓아 대비가 불가능하다. 또한 이상은 실용 도구인데, 함께 실린 신라의 장경호 그리고 기대에 담긴 백제의 중경호는 제기일 가능성이 커 보인다. 기능이 서로 다른 토기를 비교해 민족문화의 연원을 추구한 것은 효율적인 서술과는 거리가 있다. 이 경우에는 삼국의 실용 토기를 각각 비교하되 고려-조선으로 이어지는 토기의 변화를 함께 설명해야 한다.

지학사 교과서의 ‘역사 더하기’에서는 ‘유물에 나타난 고구려의 정복활동’을 설명하기 위해 경주 호우총의 호우, 충주고구려비, 몽촌토성의 항아리를 사진으로 실었다. 그런데 이는 정복활동 자체보다 그 결과물인 영토 확장의 근거이다. 고구려의 정복활동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광개토왕비나 『삼국사기』의 관련 기사와 벽화고분의 기병·보병 사진을 함께 제시하는 편이 효율적이다.

이와 관련하여 미래엔 교과서가 漢의 기마병상을 제시한 것은 전쟁의 주인공을 현실감 있게 살필 수 있는 자료라 하겠다. 그런데 사진에서 기마병 측면상은 무기를 휴대하지 않아 학생들이 기마병인지의 여부를 파악하기 어렵게 되어 있다. 이 경우에는 군인의 특징이 잘 드러나는 사진을 선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한쪽에는 무기를 소지한 고조선 군인을 배치하면 효율적일 것이다.

리베르 교과서는 고구려의 군사력을 표현하기 위해 비사성과 백암성 사진을 나란히 실었다. 이 중에서 백암성은 성벽과 치, 그리고 주변 전망이 잘 표현되어 높은 효과를 내고 있다. 반면 비사성은 인공시설물이 세워진 바위 산봉우리와 진입로처럼 보이는 곧은 길이 강조되어 사진만으로는 고구려 성인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 이 경우에는 효과가 좋은 사진 하나만 실어야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이 본문의 취지를 살리거나 보완하는 데 효과적인 사진이

선정되어야 한다.

넷째, 역사교과서에서 전쟁사 서술은 지식의 전달을 넘어 역사적 사실에 대한 비판적 사고력과 탐구력을 기르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이러한 방향은 2007 개정 교육과정부터 크게 강조되어 현행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도 적용되었다. 많은 교과서가 삼국통일을 주제로 창의성 함양을 위한 과제를 제시한 것은 이러한 목표에 부응하기 위한 노력으로 볼 수 있다.

삼국통일은 민족사적 의미가 크지만 영토상의 한계와 외세 이용이라는 문제를 동시에 담고 있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교과서가 삼국통일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 김부식의 『삼국사기』나 일연의 『삼국유사』, 그리고 부정적으로 평가한 신채호의 「독사신문」을 소개하고서 이에 대한 학생들의 견해를 서술하도록 제시했다. 천재 교육 교과서는 ‘논술 포럼’의 형식으로 독립된 페이지를 구성했다. 비상교육 교과서는 ‘탐구’ 코너로 토론과제 형식을 취했다. 리베르 교과서는 부정적 입장에서 긍정적 입장을 비판하는 글을 요구했고, 반대로 두산동아 교과서는 부정적 관점의 자료를 제시하고서 긍정적 관점의 토론문을 요구했다. 미래엔 교과서는 이 중에서 자신의 견해가 어느 쪽인지 의견을 말하도록 했다. 교학사 교과서는 한백겸의 『동국지리지』와 유득공의 『발해고』까지 자료로 덧붙여 자신의 생각 외에 당시 신라의 목표, 후대인의 관점 배경까지 모두 설명하도록 요구했다.

이상의 토의과제는 『국사』가 삼국통일 과정을 간단히 제시하고 그 의미와 한계를 말해보자고 단순하게 제시한 점과 비교하면 커다란 진전이다. 2011년 『한국사』에서는 삼화 교과서가 삼국통일에 대한 「독사신문」의 평가를 제시하고 발표하는 코너를 두었고, 미래엔 교과서가 긍정적·부정적 평가의 글을 제시하고 자신의 평가를 발표하도록 요구한 정도였다. 이와 비교해도 현행 『한국사』에서는 삼국통일과

관련하여 창의성을 계발하기 위한 노력이 강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현재 『한국사』를 배우고 있는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은 중학교 『역사』에서 삼국통일과 관련된 탐구활동을 대부분 경험하였다. 삼국통일에 대한 긍정론·부정론의 자료를 전제로 토론하고 [미래엔] 써보기[비상교육], 비판론 자료에 대한 의견 말하기나[대교] 교훈 발표하기[교학사(신영범)], 고구려의 멸망 원인 발표하기[지학사], 삼국통일을 주제로 한 뉴스속보 만들기[천재교육], 김춘추·당태종 협상의 내용 발표하기[교학사(양호환)] 등이 그것이다. 이처럼 다양한 탐구활동 중에서 현행 『한국사』는 긍정론·부정론에 대한 평가로 주제를 한정해 심화시켰다.

주제의 한정과 내용의 심화는 중학교 학습과의 연계라는 차원에서 타당한 방향이다. 하지만 탐구활동의 내용이 긍정과 부정의 선택에 치우친 것은 삼국통일의 결과만을 가지고 그 배경과 과정까지 평가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학교급별 연계를 위해서는 탐구활동의 방향을 좀 더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삼국통일 과정에서 삼국이 채택한 대외전략의 방향 평가하기, 삼국통일이 민족문화의 형성에 기여한 점을 서술하기, 삼국의 주요 인물을 내세워 통일의 방향에 대한 역사연설문 작성하기, 삼국통일이 향후의 남북통일에 주는 시사점 발표하기 등을 제시할 수 있다.

이상의 주제는 삼국통일의 주체를 사실상 국가에 한정하고 있다. 그런데 통일전쟁은 국왕 이하의 귀족뿐만 아니라 수많은 백성들의 참여와 경험을 통해 이루어졌다. 통일과 관련하여 계층별·지역별로 이해관계가 적지 않게 달랐을 가능성도 크다. 반드시 전쟁사가 아니더라도 다양한 계층과 세력을 역사적 주체로 세울 필요성이 있다.⁷³⁾ 다양한 계층의 경험과 이해관계를 소재로 삼는다면 삼국통일에

73) 김한중, 「새 교육과정 ‘역사’의 다원적 관점의 역사이해와 검정 중학교 교과서 서술」, 『역사교육연구』 12, 한국역사교육학회, 2010, 212~213쪽.

대한 탐구활동의 지평을 확대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6. 맺음말

본고는 2014년 발행 고등학교 『한국사』에 나타난 고대 전쟁사 서술을 검토하여 향후 교과서 서술의 개선방향을 모색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이제 그 결과를 정리하여 맺음말에 대신하려 한다.

역사교과서에서 전쟁사는 정치사의 하위 요소로 다루어져 왔다. 2014년 『한국사』에서 전쟁사는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강조한 국가공동체 의식의 함양이라는 목표 하에서 서술되었다. 이러한 가치는 제1차 교육과정 이후 강조된 민족의식의 연장선상에 있다. 동시에 『한국사』 교과서는 다원적 가치와 비판적·창의적 사고력의 함양을 목표로 삼았는데, 이는 제6차 교육과정에서 제시되고 2007 교육과정으로 구체화된 뒤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도 수용된 것이다.

2014년 『한국사』는 2011년 『한국사』보다 내용의 구체성이나 전쟁사의 맥락 설명, 그리고 주관적 서술의 지양이라는 면에서 적지 않은 진전을 이루었다. 하지만 고조선·연 전쟁의 과정, 고조선·한 전쟁의 대외적 배경, 초기 고구려의 대중국 진출방향, 나·당연합의 배경, 발해·신라 전쟁의 과정, 발해·거란 전쟁의 배경 등에 대해서는 서술의 보완이 필요하다. 삼국의 영토경쟁과 통일전쟁, 후삼국 간의 전쟁에서는 국가별로 균형있게 서술해야 한다. 요동, 나제동맹 등의 용어 사용에서는 정확성이 요구된다.

전쟁사 지도의 선정에서는 근거가 불분명한 7세기 초 국제정세도보다 고구려 수·당전쟁도를 우선으로 실어야 한다. 삼국통일에서는 백제·고구려의 부흥운동 지도보다 나·당연합군과 백제·고구려의

전쟁 지도를 우선으로 해야 한다. 고조선·한 전쟁도에서는 회차별 전투를 구분해야 한다. 삼국 간의 영토경쟁 지도에서는 고구려의 남하 범위를 아산만-금강상류·남한강 분수계-강릉 선으로 표기하되, 일부 경계에서는 점이지대 표현이 바람직하다. 후삼국 통일 지도에서는 진주 등에 대한 후백제의 진출정보를 표시해야 한다. 전투 정보는 전쟁의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친 것을 위주로 표기되어야 한다. 전투 상황, 비문 명칭, 고대 지명 등은 동일한 기준으로 정확하고 간결하게 표현되어야 한다. 진군로와 격전지에 대한 기호도 정확하고 간결해야 한다.

향후 역사교과서의 고대 전쟁사 서술에서 민족의 자주성에 대한 강조는 학문적 근거를 담보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민족과 국가를 중시하는 관점은 상호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 전쟁사 지도 제작에서는 필수적인 정보를 간결하게 표현하여 학습효과를 높여야 한다. 사진자료는 본문의 취지에 맞도록 선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삼국통일과 관련된 탐구활동은 긍정론·부정론을 넘어 여러 계층의 경험을 소재로 다양한 주제가 개발되어야 한다.

[원고투고일: 2014.8.27, 심사수정일: 2014.12.23, 게재확정일: 2015.2.24]

주제어 : 전쟁사, 정확성, 지도, 전투, 자주성, 민족, 국가, 탐구활동

<ABSTRACT>

Description and improvement direction about the ancient
war history which appeared 『Korean History』
- with the high school text published in 2014 -

Lee, Bu-Oh

This paper was written to analyze the ancient war history which appeared in high school 『Korean History』 textbook published in 2014, and to present its improvement direction.

In this textbook of 『Korean History』, the war history was described on the purpose of promoting the awareness of national community. This objective is in line with the national consciousness that has been emphasized since the First Curriculum. In this text, multiple values and critical thinking capability were also emphasized. These values were first presented at The Sixth Curriculum, more embodied at the Revised Curriculum in 2007, and also accepted at the Revised one in in 2009.

The Edition of 『Korean History』 in 2014 showed more progress than the 2011 Edition in terms of contents and keep the objective stance. However, it is necessary to keep the balance and also required to use precise terms among the Three Kingdoms and the Later Three Kingdoms in terms of the competition of occupying territory, the war of unification.

When it comes to the use of war history maps in the text, the map of a war between Goguryeo and Sui-T'ang and a war between Silla-T'ang Coalition and Baekje-Goguryeo should be adapted precedently over the uncertain situational map in the early 7C. It must be exact to discern each war respectively. Some expressions about the confrontation between the Three Kingdoms and between the Later Three Kingdoms should be revised. It should be preferred over the other information that had an significant effect on the result of the war.

An emphasis on the nation's independence must be based on the academic facts when you describe about the ancient war history in the future. It is necessary to keep the balance between nation and state, and to express the essential information concisely in the maps. We should choose photo materials to match the content of the text. It is required to develop various topics in the researching activities for unification of the Three Kingdoms by using the experiences of the various classes.

Key Words : war history, accuracy, map, combat, independence, nation, state,
the researching activities